

〈빌립보서 강해〉

교회의 기반을 허무는 도전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

본문: 빌 3:1-14

2024년 2월 7일

1. 개요

2:12-30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보기

3:1-14

교회의 기반을 허무는 도전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

3:15-4:1

현실의 도전 상황에 적용하기

- 유대주의자에 대한 대응.

2. 본문 주해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 “끝으로”=‘토 로이폰’ → 빌립보서의 중간 정도인데 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남은 사항들은”, “아울러”
- “주 안에서 기뻐하라” → 주 안에서 기뻐하므로 누리는 코이노니아. 모든 문제의 백신.
- “수고로움이 없고”=“주저할 이유가 없고” →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백신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 “개들”= ‘퀴나스’ → 마 15:26. 이방인. 불결한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
- “행악하는 자들” → 육체의 일을 조장하는 것. 영적인 이방인.
- “몸을 상해하는 일” → 할례. 참된 의미를 상실하여 행해지는 것은, 이교도의 관습과 같음.
- 그리스도의 반전. “이방인으로 간주해야 할 자는 유대주의자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 “우리가 할례파이다. 우리는~ ”
- 1)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 ‘봉사하다’=‘라트류오’=‘예배하다’ 출 3:12.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트류오)”
요 4:23~24. 성령과 진리로 예배.
- 2)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카우카오마이엔 크리스토’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카우카오마이=즐거워하다, 경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 마음 상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만큼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상태.
- ↔ 3)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 ‘육체’=‘사룩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인간 안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것.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 “육체를 신뢰함” → 3절과 4~6절을 연결하는 표현. 육체의 자랑.
- 바울의 육체적 자랑.
- 1)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전통에 속했음.
 - 2) “이스라엘 족속이요” → 2등급으로 인식되는, 개종자들과 다른 정통 유대인.
 - 3) “베냐민 지파요” →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자긍심을 간직한 지파.
 - 4)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양육을 받았음을 강조.
 - 5)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본래 바리새인은 바울 시대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
- “열심으로는” → ‘열심당’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 “교회를 박해하고(디오콘)” → ‘디오콘’ 박해하다, 달려가다. 6절과 12, 14절의 반전.
-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 다메섹 사건 이전 바울. 율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함.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유익”(케르도스) ↔ “해”(제미아) → 유익과 해는 이익과 손해에 해당하는 회계 용어.
-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그노시스)” → ‘그노시스’=‘아다’=알다, 동침하다
- “고상하기(휘페레코) 때문이라” →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 파산.
- “배설물”=‘스퀴발라’ → 쓰레기. 한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혐오하게 됨.
- “그리스도를 얻고(케르다이노)” → ‘케르다이노’=~라는 수익을 남기다, ~을 이윤으로 챙기다.
- “파산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남는 장사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

- ‘칭의’

-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수동태로 전환. 갈 4:9,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vs.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피스티스’=믿음, 신실함.
-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성화’
-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코이노니아)” → 신자의 목표. 부활의 능력이 현재 삶에서 나타나는 것.
-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שמורפי조마이)” → 신자의 과제. שמורפי조마이=같은 모양이 된다, 닮는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모해 가는 것.
‘세례’ 롬 6:4,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 ‘영화’
- “어떻게 해서든지”=“할 수 있다면” → 무언가를 희망하지만 기대와 의심이 함께 있는 상태, 간절히 바라지만 그 성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킴.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대응.
- “부활에 이르러(카탄타오) 하노니” → ‘카탄타오’=‘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미’와 ‘아직’ 부활을 향한 여정.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14절의 대칭구조>

- | | |
|----|----------------------------------|
| A | 나는 이루지 않았다[람바노](12절) |
| B | 나는 이루기 위하여[카타람바노] 추구한다[디오코](12절) |
| A' | 나는 도달한[카타람바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3절) |
| B' | 나는 목표를 향해 추구한다[디오코](13-14절) |

- 운동장의 달리기 장면.
- “이미 얻었다(엘라본) 함도 아니요” → ‘엘라본’=취하다, 얻다.

- “온전히 이루었다(테텔레오마이) 함도 아니라” → 온전히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에게 대한 반박.
- “내가 예수께 잡힌(카타람프센)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카타라보)”
→ ‘카타람바노’=붙잡다, 얻다, 온전히 이해하다.
- “달려가노라”=‘디오코’ → 추적하다, 강하게 압박하다, 박해하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던(디오코)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음(디오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 계속해서 달려감.
-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 ‘잊어버리고’=무시하다, 신경 쓰지 않다. 경주자가 툇대에 집중하여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앞에 있는 것’=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그노시스).

14절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툇대”=‘스코포스’ → 전차 경주나 육상 경기 결승점. 경주하는 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바라봐야 할 결승점.
- “위에서 부르신” → 땅과의 대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3:20)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사명을 따라 달려감.
- “부름의 상(브라베이온)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디오코)”
→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반영한 표현.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상을 위하여 달려감.

▣ 요약 및 적용

1.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남는 장사

자랑할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 충분하다.

적용: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

2. 툇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툇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확실하니 부름의 상도 확실하다.

적용: 우릴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자!